

# HISTORY

- 태동 그리고 개척
- 現代, 도전과 시련
- 현대중공업 가족, 최고를 향한 시작

## 현대중공업 가족, 최고를 향한 시작

—

2010~2014

최고가 되기 위한 꿈에 힘찬 날개를 달았습니다.

# 2010

## 현대중공업 가족이 되다

2010년 8월 12일, 계열 분리된 지 10여 년 만에 현대중공업의 가족이 되었다. 새롭게 세워진 대산공장 정문. 현대를 상징하는 H 정문은 새롭게 출발하는 현대오일뱅크의 꿈과 염원을 담았다.



현대중공업 가족 이후 대산공장 정문



**2010** 권오갑 대표이사 사장 취임  
8월 12일 현대중공업에서 33년간 근무한 권오갑 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대산본사를 찾았다.

“세계 최고의 종합중공업 회사, 현대중공업 그룹의 일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명예회장께서 평소 강조하셨던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일하는 사람이 귀히 여김을 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800여 명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내가 사장’이라는 적극성과 주인의식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권오갑 대표이사 사장 취임사에서

## 2010 현대 사훈 전달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 및 경영진들이 대산공장을 방문해 현대 사훈을 전달했다. 이날 경영진들은 공장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고 현장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직원들에게 현대중공업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



## 2010 현대중공업 가족 대외 선언

전국 2,500여 개 주유소에 일제히 현수막을 걸어 고객들에게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중공업 가족으로 새롭게 출발함을 알렸다.



## 2010 소통 강화로 조직 안정화

권오갑 사장은 취임 후, 스킨십을 통한 임직원과의 소통을 중시했다. 배우자 현대중공업 견학, 등산, 체육대회, 월급봉투, 해병대 체험 행군 등 임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기(氣)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유업계에서 요즘 현대오일뱅크를 가리킬 때 쓰는 수식어는 ‘괄목상대(刮目相對)’다. 외국계로부터 이 회사를 인수할 때와 지금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직원들의 자신감이 커진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주유소 업주 등 고객들이 회사를 보는 인식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2011년 8월 12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발췌



## 2010 영업력 강화

권오갑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주유소 현장근무를 통해 영업 일선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후된 시설 교체, 환경 개선, 광역본부 체제 도입, 마케팅 강화 등으로 영업력 강화에 주력했으며, 과거 10년 가까이 18%대에 머물던 국내 경질유 시장점유율을 23%대까지 끌어올렸다.

# 2011

## 사업다각화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다

제2 고도화, 제2 BTX, 윤활기유, 오일터미널, MX사업 등 적극적인 신사업 추진으로 원유정제에 치우친 사업구조를 탈피,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2009년(사진 아래)과 2014년(사진 오른쪽) 대산공장의 모습



- 2010년 이전 대산공장 공정구역
- 2010년 현대중공업그룹 가족 이후 추진, 증축된 공정구역

# 업계 최고 고도화율 달성, 제2 고도화 시설

2011년 준공한 제2 고도화 시설의 모습





2011년 제2 고도화 시설 준공식 모습  
 사진 왼쪽부터 대림산업 김윤 사장,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  
 일본 코스모오일 모리카와 부사장, 현대백화점 경청호 부회장, 현대오일뱅크 김태경 노조위원장



고도화 시설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벙커C유와 아스팔트 등 중질유를 부가가치가 높은 휘발유나 경유로 전환하는 첨단설비다. 고도화 비율이 높을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경질유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제 마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회사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1년 총 2조 6,000억 원을 투자, 하루 6만 2,000배럴 규모의 제2 고도화 설비를 준공했다. 제1 고도화 시설(7만 2,000배럴)과 합쳐 하루 13만 4,000배럴의 고도화 능력을 갖췄고, 업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 비율 34.4%를 달성했다.

# 석유화학 기업으로의 도약, 현대코스모

2013년 준공한 제2 BTX 시설의 모습





제2 BTX는 혼합자일렌을 원료로 석유화학의 기초가 되는 벤젠과 파라자일렌을 생산한다. 일본 코스모석유와 합작해 설립한 현대코스모는 석유화학 수요 대응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2013년 대산공장에 제2 BTX 설비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연 50만 톤의 생산능력을 150만 톤까지 올리게 되었다. 현대오일뱅크는 전체 매출의 14%까지 차지하게 될 BTX를 통해 석유화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2013년 제2 BTX 설비 준공식 모습  
사진 왼쪽부터 코스모석유 모리카와 케이조 사장, 코스모석유 기무라 아이치 회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 이완섭 서산시장, 현대오일뱅크 김태경 노조위원장

“현대코스모는 모회사인 현대오일뱅크와 코스모오일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석유화학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코스모 장지학 대표 인터뷰 중에서

# 또 다른 미래 성장동력, 현대셀베이스오일

2014년 완공한 윤활기유 시설의 모습





2013년 윤활기유 공장 기공식 모습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현대오일뱅크 김태경 노조위원장, 이완섭 서산시장,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  
 마크 게인스보로우 셸 아태지역 대표, 권희태 충남도 부지사, 현대셀베이스오일 문종박 대표

“2014년 8월 제품 생산을 시작할 윤활기유는 현대오일뱅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대산이 수출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대셀베이스오일 문종박 대표 인터뷰 중에서



윤활기유는 윤활유의 기초 원료다. 여기에 각종 첨가제를 섞어 자동차와 선박, 각종  
 산업용 등 다양한 윤활유 완제품을 만든다. 다국적 에너지기업 셸과의 합작법인인  
 현대셀베이스오일은 2014년 4월, 대산공장에 최첨단 윤활기유 설비를 준공했다.

3만 3,000㎡ 부지에 들어선 공장은 하루 2만 배럴의 원유 부산물을 처리해 연간 65만  
 톤의 윤활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현대셀베이스오일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윤활기유를 수출해 2015년부터 연간 1조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업계 최초 상업용 유류 저장사업 진출, 현대오일터미널

2014년 완공한 울산신항 유류저장 시설의 모습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자회사 ‘현대오일터미널’을 설립, 상업용 유류저장 시설을 준공했다. 울산신항 남항부두의 공유수면 8만 7,000㎡를 매립해 건설한 유류저장 시설은 5만 톤급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총 28만kl의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35개의 저유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대형 탱크로리(20kl) 1만 4,000대를 한꺼번에 채울 수 있는 규모다. 현대오일터미널의 유류저장 시설은 향후 동남권 최대의 물류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14년 현대오일터미널 준공식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성달 울산소방서장, 김용태 울산세관장, 박성환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채익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정수철 울산항만청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종욱 울산해양경찰서장

“현대오일터미널의 유류저장 사업은 정제 분야에 치우쳤던 현대오일뱅크의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대오일터미널 안창희 대표 인터뷰 중에서

## 안정적인 수입 기반 확보, 현대케미칼

2014년 롯데케미칼과 1조 2,000억 원 규모의 MX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첫 합작법인인 현대케미칼이 출범했다. 현대케미칼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내 22만㎡(6만 5,000평) 부지에 들어서며 오는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대케미칼은 향후 연간 100만 톤에 이르는 MX를 생산해 롯데케미칼과 현대오일뱅크 자회사 현대코스모에 공급,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하루 6만 배럴의 등·경유 제품은 현대오일뱅크가 전량 수출하고, 경질납사 100만 톤은 롯데케미칼에 공급될 예정이다.



2014년 현대케미칼 창립 총회 및 이사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 롯데케미칼 허수영 사장

“국내 정유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MX공정을 2016년까지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현대케미칼 강명섭 대표 인터뷰 중에서



▲ 2012년 완공한 제8 FBC보일러

▼ 2014년 완공한 제9 FBC보일러



## 집단에너지 사업의 토대, 최첨단 열공급 설비(FBC)

첨단 열공급 설비(FBC)는 저유황 중유를 기반으로 한 기존 설비와 달리 국내 최초로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유코크스를 연료로 스팀을 생산한다. 원가 경쟁력을 갖춘 스팀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정의 열원으로 쓰이기도 한다.

2012년 제8 FBC보일러 준공으로 시간당 220톤의 스팀을 생산,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내고 있으며, 2014년 9월 제9 FBC보일러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향후 대산공장 인근 석유화학공단에도 스팀을 공급해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XT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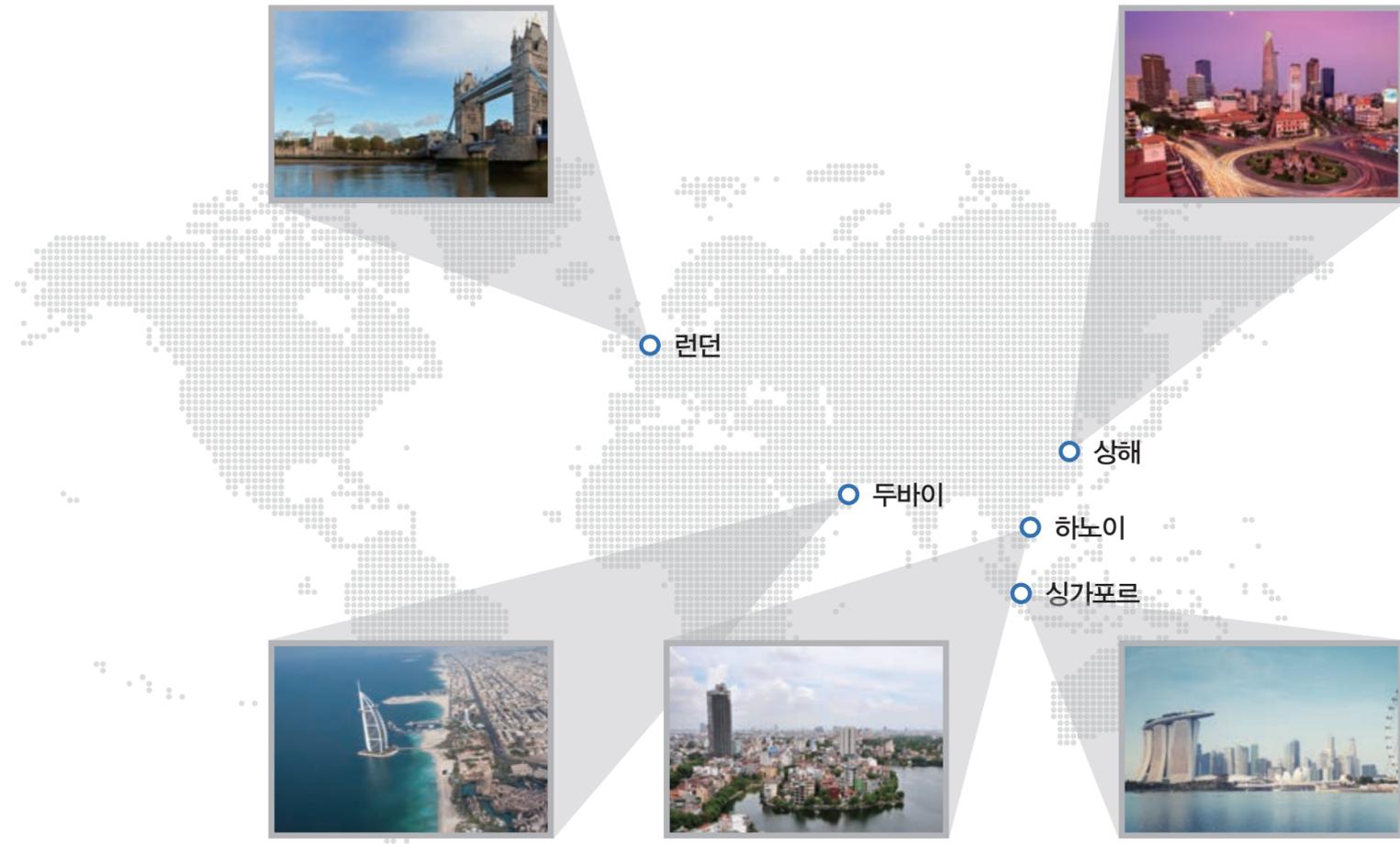
## 윤활유사업 진출, 엑스티어(XTeer) 출시

2013년 윤활유 신제품 '엑스티어(XTeer)'를 출시, 엔진오일 시장에 진출했다. 윤활유는 고도화 공정에서 나오는 잔사유를 처리해 만든 윤활기유에 각종 첨가제를 혼합해 생산하는 제품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쉘과 합작해 윤활기유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윤활유 제품까지 자체 생산하면서 수직계열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연간 18만 배럴의 제품을 생산, 전국 2,400여 개 주유소 및 차량 경정비 네트워크로 유통망을 확대해 국내외 윤활유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지사 설립

싱가포르와 상해에 법인을 설립하고 두바이, 하노이, 런던에 지사를 확충하는 등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첨단 설비 증설을 통해 늘어난 제품 물량을 해외시장에 적극 수출하기 위해서다.



## 최고의 품질을 위한, 중앙기술연구원 개원

성남 판교에 중앙기술연구원을 개원했다. 중앙기술연구원은 다양한 연구활동 및 기술 인재 확보를 통해 현대오일뱅크 R&D의 심장으로서 거듭나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 울산대 김재성 교수, KAIST 유룡 교수,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 강달호 중앙기술연구원장

